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3년보다 0.2%포인트 떨어져 7년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으로 2013년보다 1.5%p 하락했다.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 2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4천억원(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 학생 수가 628만6천 명으로 2013년보다 3.0% 감소한 영향이 크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4.4%), 경기(72.8%), 대전(70.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전남(58.5%)이 가장 낮았다.

유아·초·중등교육

■ 유아교육

유치원 수는 1980년 901개에서 1990년 8천354개로 급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계속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설립도 주춤해 2000년 8천494개, 2005년 8천275개, 2012년 8천538개, 2013년 8천561개, 2014년 8천826개, 2015년 8천930개 등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 원아 수는 1965년 1만9천566명에서 1970년 2만2천 271명, 1980년 6만6천433명, 1990년 41만4천53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65만9천265명으로 1965년의 34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에는 65만2천546명으로 2013년보다 6천719명 줄었고, 2015년에는 68만2천553명으로 다시 늘었다.

원아 수는 2000년 54만5천263명, 2010년 53만8천587명 등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2012년 누리과정의 5세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2013년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는 1945년 2천834교에서 1965년 5천125개교, 1985년 6천519개교로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1990년 6천335개교, 2000년 5천267개교로 줄었다가 2001년 5천322개교, 2005년 5천646개교, 2009년 5천829개교, 2013년 5천913개교, 2014년 5천934개교, 2015년 5천978개교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65년 494만1천345명에서 2013년에는 278만4천 명으로 줄었다.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0년으로 574만9천301명이었으며 그 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13만2천477명에서 2012년 295만1천995명으로 20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3년 278만4천 명, 2014년 272만8천509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도 271만4천610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7만9천164명에서 2011년 18만 625명, 2012년 18만1천435명, 2013년 18만1천585명, 2014년 18

만2천672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8만2천658명으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1965년에는 남자가 5만8천957명, 여자가 2만207명으로 남자 교원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에는 남자가 6만 8천196명, 여자 6만8천604명으로 역전되고 2015년에는 여교원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이었다가 2008년에 29.2명으로 20명대로 접어들었고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 2014년 22.8명, 2015년 22.6명으로 계속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1년 28.7명, 2003년 27.9명, 2005년 25.1명, 2007년 22.9명, 2009년 19.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5.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9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 중학교

중학교 진학률은 1965년 54.3%에 그쳤으나 1980년 95.8%로 증가했고 1995년 이후에는 99.9%의 진학률을 보이며 현재는 거의 완전 진학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수는 1965년 1천208개교에서 2012년 3천166개교, 2013년 3천173개교, 2014년 3천186개, 2015년 3천204개로 늘었다.

학생 수는 1965년 76만1천341명에서 1985년 278만2천173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3년 180만4천189명, 2014년 171만7천911명, 2015년 158만5천951명이 됐다.

중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9천67명에서 1995년 9만9천93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13년 11만2천690명, 2014년 11만3천349명, 2015년 11만1천247명이 됐다.

성별 구성비는 1965년에는 남자 교원이 83.9%였으나 1995년부터 여자 교원이 남자 교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자 교원이 68.6%를 차지했다.

1965년 60.7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 2008년 34.7명, 2011년 33.0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 2015년 28.9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 45.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 20.1명, 2001년 19.6명, 2008년 18.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6명, 2014년 15.2명, 2015년 14.3명이 됐다.

■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5년 389개교에서 계속 증가해 1990년 1천96개교로 1천 개교를 넘어섰으며 2010년 1천561개교로 증가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65년 312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학교 구분이 다양해졌다. 2015년 기준으로 일

반고 1천537개, 특수목적고 148개, 특성화고 498개, 자율고 161개교가 있다.

학생 수는 일반계 고교의 경우 1965년 25만4천95명에서 1990년 147만3천155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이후 증감을 반복했다. 전문계고는 1965년 17만2천436명에서 2010년 46만6천29명으로 증가했다. 2015년 학생 수는 일반고 127만8천8명, 특목고 6만7천529명, 특성화고 30만2천21명, 자율고 14만708명이다.

일반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7천894명에서 2010년 9만735명으로 늘었고 전문계 고교 교원 수는 1965년 6천214명에서 2010년 3만5천688명으로 늘었다. 2015년은 일반고 9만878명, 특목고 7천245명, 특성화고 2만6천588명, 자율고 10만288명이다.

고등교육

■ 전문대학

전문대학 수는 1965년 48개교에서 1980년 128개교로 증가했고, 이후 199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999년에 161개까지로 늘어났다. 이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138개교로 1990년 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학생 수는 1965년 2만3천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 16만5천5명, 2003년 92만5천96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학생 수 감소 및 4년제 대학의 선호로 2009년 76만929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전문대 학생 수는 증감을 거듭하다 2015년 72만466명으로 떨어졌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1965년 57.5%였다가 1970년 72.6%로 높아졌으나 1975년부터 1985년 사이 감소추세를 보여 50~6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86.5%까지 높아졌다가 2014년에는 61.4% 수준이 됐다.

■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대, 산업대, 기술대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교는 1965년 70개교에서 1980년 100개교로 늘었으며,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189개교가 됐다. 국·공립 대학교가 1965년 14개교에서 2015년 35개교로 늘었고, 사립대학교는 1965년 56개교에서 2015년 154개교로 증가,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학생 수는 1965년 10만5천643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1990년 104만166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1년 206만5천451명, 2012년 210만3천958명, 2013년은 212만296명, 2014년 213만46명, 2015년 211만3천293명이 됐다.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2005년 65%, 2006년 67.3%, 2008년 68.9% 등으로 높아졌지만 2009년 68.2%로 주춤했다가 2013년 55.6%, 2014년 54.8%로 떨어졌다.

교육계 동향

■ 누리과정 예산갈등 계속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누리과정(취학전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시·도교육청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고 보육기관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감들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소요액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누리과정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이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2조1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만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냈으면서 추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 세계교육포럼…서울선언 채택

2015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교육부가 세계교육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참가국들과 유네스코는 향후 15년 동안 세계 교육의 발전 목표와 실천 방안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가국들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9년의 초·



▲ 2015 세계교육포럼 둘째 날인 5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